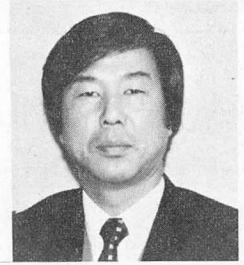




양돈장의 질병방지와 대책



유성열

(<주>삼양사 영광축산시험장)

1. 구조적인 질병대책(불변요인)

●농장 환경

플러스(+): 남향의 부지, 배수가 잘 되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

마이너스(-): 도로와 가까운 곳, 사람 왕래가 많은 곳, 다른 양돈장과 가까운 곳

●양돈장 구조

부지가 넉넉할 것. 주차장. 출입구 소독시설. 출입구에서 사료하차와 출하돼지 상차. 돼지의 이동 방향이 출입구로.

●건물의 배열과 균형과 구조

축사별, 용도별 사육 균형. 돈분장. 폐수장 돈사의 거리. 돈사의 단열과 환기. 돈사의 간격. 돈사의 소독판. 돼지 두수와 돈방의 크기. 돈방의 형태. 돈방의 시설 채질(바닥 벽체의 상태 등). 급수, 급이기의 적합성(형태와 갯수).

●구입돈의 격리 사육

돼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새 질병을 막으려면

구입한 돼지는 일정기간 따로 키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기존 돈사와 적당히 떨어진 곳에 간단한 사육시설을 만들어 최소한 한 달은 세밀하게 관찰하며 키운다. 아무리 좋은 돼지라도 없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잘 치료되지 않으면 도태시킨다. 있는 돼지에게 질병이 옮긴 후 치료비와 작업량 등의 피해를 합하면 돼지 구입비는 작은 금액이다.

위의 내용은 양돈장을 새로 만들때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결정해야 한다. 일단 양돈장이 만들어진 후에는 고치기 힘들고 질병의 방지와 돼지의 보호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2. 양돈장의 작업(가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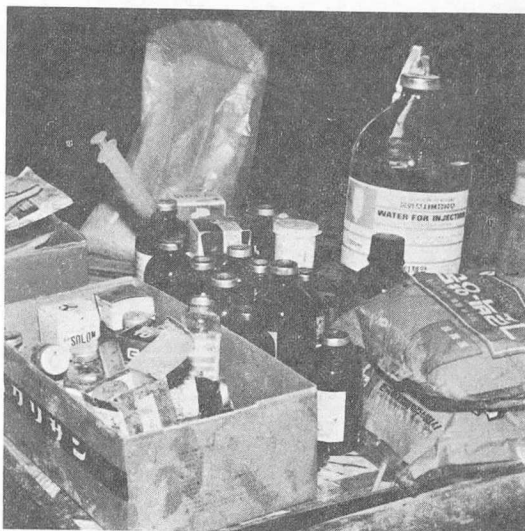
●주기적인 소독과 청결

양돈장은 청결하게 유지한다. 특히 돈분과 사료관리를 잘해서 쥐, 새, 파리의 증식을 최대한 억제한다.

차량, 사람, 건물, 기구는 필요할 때마다 소독한

예방접종에 사용할 약과 기구는 언제나 쓸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숙달된 사람이 정확하게 실시한다.

환돈은 예방접종시 제외시킨다. 질병의 특성에 따라 접종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농장특성에 맞는 접종 작업방법을 정한다.



다. 특히 여름에는 소독횟수를 늘린다. 환절기, 전염병 발생 위험기에는 적절한 소독약을 쓴다. 소독약은 반년이나 일년마다 바꾸어 쓴다.

●정확한 예방접종

필요한 예방주사는 다 놓는다. 제조회사에서 권하는 방법에 따른다. 책에서 전문지식을 얻고 전문가의 자문으로 양돈장 실정에 맞는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질병도 있다. 예방접종에 필요한 기구와 약은 정상상태로 보관하고 언제나 쓸 수 있도록 필요량을 확보한다. 작업은 숙달된 사람이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주사액이 체온과 온도 차이가 크면 돼지에게 나쁘다. 환돈은 예방접종 효과가 의심스럽다. 일년 계획을 세우고 실시한다.

●예방접종

최소 5가지 이상의 예방주사를 놓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할 질병은 주인이 결정한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정기적인 구충도 실시한다.

예방접종에 사용할 약과 기구는 언제나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숙달된 사람이 정확하게 실시한다. 환돈은 예방접종시 제

외시킨다. 질병의 특성에 따라 접종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농장 특성(특히 규모)에 맞는 접종 작업 방법을 정한다.

접종한 개체는 표시해서 빠지는 돼지가 없도록 한다.

●정상과 이상의 구분

정상일 때는 체온, 호흡, 맥박, 거동, 식욕, 반응, 분·뇨에 대해서 책을 보고 또 현장을 통해 잘 알아둔다. 매일 돼지를 보면서 반복해서 외운다.

“저 증세는 무슨 질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다”고 빨리 구별해 내는 것이 첫째다.

병명과 치료약, 치료방법은 둘째다.

●위험한 돼지의 해부

이상한 돼지를 치료하다 보면 상태가 나빠져서 죽을 때도 있다. 이런 돼지는 공부할 재료로 삼는다. 해부해서 장기 조직을 검사하고 기록을 남긴다. 처음에는 몰라도 사진을 찍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자꾸 배운다. 부지런히 1년만 하면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증상과 치료와 변화와 기록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한다. 상태가 변하고 이웃 돈방에도 증세가 나타난다. 계속 치료를 하면 질병이 완치된다. 이때 치료일지에 증세와 치료방법 환돈의 마릿수 변화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여러가지로 좋다.

이 기록은 질병을 공부하는 자료가 되고, 특히 계절적인 질병은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전문가에게 의뢰

새로운 질병이나 피해가 심하게 날 때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해결방법을 찾도록 한다. 우물거리거나 무심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인근의 가축병원이나 가축보건소에 의뢰하면 빨리 문제점과 대책을 알 수 있다.

3. 주인의 의지

●공부하기

배우려고 노력한다. 교육도 참석하고, 남의 경험도 듣고, 해부도 하고, 책을 보고 공부한다.

옛날에 써둔 치료일지를 찾아 본다. 누구에게 어떤 것을 물을 수 있는가를 알아둔다.

●현장 확인

하루에 한번 이상 돼지를 본다. 정상과 이상을 확인한다. 만성질병 특히 호흡기 질병은 무심하게 넘기기 쉽다. 이럴 때는 기침하는 마릿수의 변화와 사료섭취량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일과 시작전 돼지가 누워 있을 때 돈사에 들어가서 환경조건도 확인한다. 요즈음 같은 환절기에 아침 일찍 돈사에 들어 가서 맞은편 돈사 출입문이 흐리게 보이면 환기가 불량해서 습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낮에 맞은편 출입문이 흐리게 보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한다. 수시로 작은 것이라도 적는다. 현장 치료 작업시 확인하고 일보에도 기록한다. 일과 후에는 수첩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이면 먼지가 많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료섭취량, 똥과 오줌의 색깔, 냄새, 양, 거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환돈의 치료정도를 확인한다.

●기록 확인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한다. 수시로 작은 것이라도 적는다. 현장 치료 작업시 확인하고 일보에도 기록한다. 일과 후에는 수첩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주기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약값, 노동력 손실(추가 노동력), 폐사로 인한 직접 손해와 간접 피해, 출하 감소로 인한 손실을 돈으로 환산해서 붉은 글씨로 산출내역과 함께 금액을 일보에 적어 넣는다.

●교육

내가 모르는 것이나 새로운 것은 배워온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종업원에게 가르쳐 준다. 또 반대의 경우도 시행해야 한다. 질병증세에 대한 판단이 주인과 종업원이 같아 지도록 노력한다.

●되풀이

위에 적은 일들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야 한다. 양돈장에 질병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예방과 치료와 사후처리가 있다. 질병에 따라서는 실시한 방법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빨리 다른 방법을 실시해서 결과를 관찰한다.

질병의 특성상 작업과 기록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오래가게 된다. **●**